

시민들에 보다 많은 정보와 길 열어줬으면



2만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63년 동안 누구보다도 목이 긴 기린처럼 세상을 높이, 멀리, 넓게 바라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길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내리면 우산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아준 광주일보에 더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 되어 주길



1952년 창간 이후, 불편부당의 정론을 펴는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전은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전남 혁신 도시를 '대한민국 전력허브', '세계적인 에너지 밸리'를 만들어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지역민 눈·귀 되어 여론형성 앞장서 달라



광주일보의 2만 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63년의 세월동안 깊이 있는 분석과 품격있는 내용으로 성숙한 여론형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광주은행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김한 JB금융지주회장 겸 광주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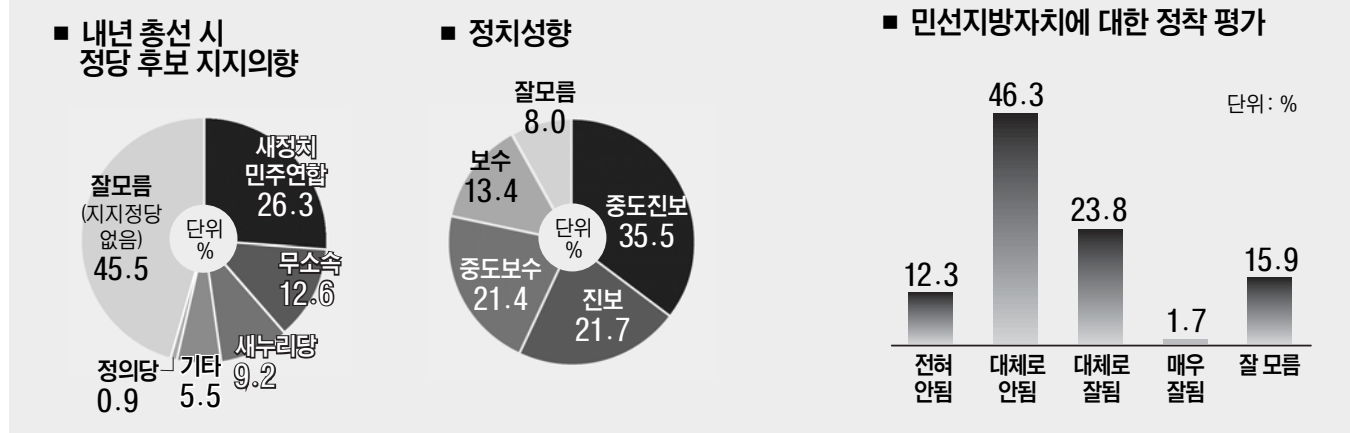
지역민에 사랑·신뢰받는 신문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해온 광주일보 반세기, 지방 자치의 수호자이며 공정한 지역의 정론지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온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를 축하드립니다. 광주일보가 앞으로 지방 자치 30년을 이끌어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협 회장>

호남·호남인 여론조사  
정치·의식

유권자 53% “내년 총선 현역의원 안 찍겠다”



◇정치성향=스스로의 정치성향에 대해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57.2%(중도 진보 35.5%·진보 21.7%)로, '보수 성향'층으로 답한 34.8%(중도 보수 21.4%·보수 13.4%)에 비해 많았다. '진보 성향' 응답률은 광주 거주층(52.3%)에 비해 전남 거주층(60.8%)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2.5%)와 30대(62.0%), 40대(67.2%)에서 '진보 성향'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50대(44.4%)와 60대 이상(43.3%)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현역 국회의원 재지지 여부=응답자의 52.7%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지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이 38.0%로 가장 높았고, '절대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은 14.7%였

다. 반면, '지지의향' 층은 42.9%였다. 이 가운데 '가능하면 지지하고 싶다'가 35.6%, '적극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7.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지지여부를 유보한 응답층은 4.4%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명중 5명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4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60.0%)가 전남(47.3%)보다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지지의향 없다'는 층이 60.2%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지의향' 층이 53.4%로 높았다. ◇내년 총선에서 정당후보 지지의향=

45.5%가 내년 총선 시 정당후보 지지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26.3%였고, 이어 ▲무소속 후보(12.6%) ▲새누리당 후보(9.2%) ▲기타 정당 후보(5.7%) ▲정의당 후보(0.9%) 순이었다. 총선이 10여개월 남은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아직 지지할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이상기류'로 해석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을 겪고 있는데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호남발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잘 모름(지지할만한 정당 없음)' 응답은 남성(41.5%)보다 여성(49.3%)층에서 더욱 높았고, 지역별로는 전남 거주층(49.

7%)에서 광주 거주층(39.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다'는 응답률이 5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이상에서도 47.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광주·전남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지지정당 없음'의 무당파층이 45.0%로 가장 높았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2.1%, 새누리당 7.3%, 기타 정당 4.6%, 정의당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은 여성(50.5%)이 남성(39.4%)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25.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 응답률이 40.9%로, '신당창당 보다는 새정치연합 중심 단결' (37.7%) 보다 우세했다. 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단결해야한다'가 40.2%로,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31.7%)의 응답률 보다 높았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55.6%)와 서구(43.9%)와 남구(44.9%)에서 신당창당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45.8%)에서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 의견이 우세했고, 20(35.3%)·30(40.4%)·40(43.0%)·60대(41.

민선 지방자치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58.6%(대체적으로 잘 안되는 편 46.3%·전혀 안되고 있다 12.3%)가 '잘 안되는 편'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 응답은 25.5%에 그쳤다. '대체로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23.8%였으며, '매우 잘되고 있다'는 1.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9%였다. 지역별로는 광주(61.7%)가 전남(56.2%)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50대에서 '부정적 평가'의 응답률이 60%대로 두드러졌다. ◇지방의원 인지도 평가=지역민 10명중 5명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지방의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지방의원을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39.2%로 가장 높았다.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0.2%였다. 따라서 '알고 있다'는 응답층은 49.4%다.

“지지 정당 없음” 45% ...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신당 창당보다 새정치 중심으로 뭉쳐야” 39%  
“민선 지방자치 정착 잘 안되고 있다” 부정 평가  
지역민 절반 “거주지 지방의원이 누군지 몰라”

하지만, '대체로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27.1%. '전혀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이 23.4%로 조사돼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층은 사실상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0.5%에 달했다. 특히 광주 응답자 중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률이 64.8%에 달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32.7%, '대체로 잘 모르는 편'이 32.1%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거주지 지방의원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 응답자 중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45.9%,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14.1%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60.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의 경우 지방의원에 대한 무관심이 높았고, 40대 이상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방의원에 대한 무관심은 젊은층인 20대(19세 포함)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77.6%(전혀 모름 49.8%, 대체로 잘 모르는 편 27.8%)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도 62.3%로 높았다. '전혀 모름'이라는 응답률이 34.4%, '대체로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27.9%였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점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